

시정돼야 할 출판계의 '불공정거래'

김성도 | 고려대 언어학과 교수

이 글은 다분히 개인적 사안이지만, 필자에게는 절박한 일하기에, 이 땅의 출판인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다. 문계의 발단은 바로 필자가 가장 아끼고 있는 줄역자 《그라마톨로지》다. 필자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인 자크 데리다의 주저인 이 책을 약 5년간의 각고 끝에 불완전하나마 1996년 2월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

〈대우학술총서〉로 나온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의가 있다는 것이 당시 언론 및 학계에서 보낸 중평이었다. 3개의 중앙 일간지가 출판을 대서특필하는 분에 넘치는 반응을 보여줬으며, 이 책으로 필자는 출판문화대상(번역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을 접한 데리다 교수가 필자와 한 시간의 대담을 허락해 주는 배려를 한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이 책을 더 이상 필자의 이름으로 수정본을 낼 수 없을 것 같다. 당시 이 책은 〈대우학술총서〉의 간행을 맡았던 민음사에서 출간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저작권의 시효가 개시되기 전 그만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출판한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책의 저작권을 미리 확보한 출판사가 따로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은 1998년 이후 완전

절판된 상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출판사의 발행인은 필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출판사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내자는 최초의 의사를 반복해, 완전 개정판을 내자는 필자의 여러 번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역자를 다시 찾아서 다른 번역본을 내겠다는 의사를 시사했다(실제로 번역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 저작권을 미리 확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자가 가장 아끼는 책을 다시 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만약, 역자를 재선임해 기존의 《그라마톨로지》를 훨씬 능가하는 역서가 나온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만약 외국어 번역본으로 적당히 바꿔치기해 책을 낸다면, 그것은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필자는 이 책의 번역에 착수할 만한 여러 선생님들에게 그런 작업을 응낙한 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봤다. 모두 내로라 하는 프랑스 철학과 문학의 대가 분들이다. 그 분들의 판단으로도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더 다듬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상식이지, 다시 몇 년의 수고를 누가 자청하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문제를 제기한 좀더 깊은 이유는, 이 문제가 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국 서적 출판관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제1의 원리로 작용하는 시대라지만, 정신과 양식을 담은 인류 최고의 문화 창조물인 책에도 그런 논리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슬픈 현실이다.

막말로, 돈으로 외국 저명 출판사의 판권을 모두 구입해 해당 출판사와 친밀한 일부 번역자들만 번역권을 독점한다면, 이것은 분명 출판의 불공정거래로서, 지식의 공유라는 차원에서도 시정돼야 할 것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i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